



# 조혈모세포이식에 사용되는 약제들

녹십자는 불모지나 다름없던 국내 생명공학산업을 선도해 온 대표적인 연구개발 중심 기업이다. 1967년 창립 이래 녹십자가 걸어 온 발자취를 살펴 보면 그 면모는 더욱 뚜렷해진다.

## 녹

십자는 1970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고난도 기술이 요구되는 혈액분획제제 사업을 시작으로 '만들기 힘든, 그러나 꼭 있어야 될 특수약품' 개발에 매진하여 이제는 바이러스와 박테리아 분야에서 국제적인 생명공학 전문기업으로 발돋움 했다.

이러한 노력의 결과 녹십자는 12년간의 오랜 연구 끝에 1983년 세계에서 세 번째로 B형간염백신 개발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두었다.



녹십자본사

녹십자가 개발한 B형간염백신 '헤파박스'는 13%대에 달하던 우리나라 B형간염 보급율을 절반으로 떨어뜨려 국민보건 증진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다. '헤파박스'는 지금까지 1억 3천만 명분인 총 4억 도즈가 WHO, UNICEF를 비롯하여 60여개 국가에 보급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접종된 B형간염백신으로 기록되고 있다. 녹십자는 B형간염백신 개발에 이어 1988년에 세계 최초로 유행성출혈열백신, 1993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두백신, 1987년에 국내 최초로 AIDS진단시약을 개발하는 등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서 차별화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. 이처럼 'R&D는 미래의 매출액'이라는 신념아래, 녹십자는 매년 국내 업계 최고 수준인 매출액의 5~7%를 R&D에 투자하며 한 우물을 파는 정성으로 세계적인 신약개발에 매진하고 있다.



## IV-Globulin

### 골수이식후 IV-Globulin 치료법

IVIg는 사람혈장 유래 면역 글로불린입니다.

즉 사람의 혈액 속에 존재하는 항체만을 모아서 제조한 제품입니다. 현재는 자가면역질환 및 중증감염증 치료에 탁월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여러 임상논문에도 보고되고 있습니다. 골수이식 시 치료에는 주로 형제자매간 골수제공에 의한 동종골수이식 상황 및 타인 골수이식 시 IVIG가 쓰이고 있습니다.

사용목적은 이식 시 발생하는 이식편대숙주반응(GVHD)의 억제 즉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골수를 받을 경우 골수의 생착을 방해하려는 이식거부반응을 예방하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, 두 번째 GVHD의 원인이 되는 T세포를 조절하는 작용 때문입니다. 이작용은 바이러스와 조직사이의 비 특이적인 면역상호작용에 의해 T세포의 활성을 감소시키는 기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세 번째는 감염예방입니다. 사람의 몸 속에 잠재하는 Cytomegalo Virus 및 여러 바이러스 및 세균에 대한 방어 및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골수이식 시 IVIG투여는 필수적이고 이식받은 골수의 정상적인 생착에 IVIG의 역할은 지대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.

